**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예수 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수 없네

주예수 보다더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더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예수 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더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흙먼지**

그 흙먼지 속을 말없이 걸으시네

이 비천한 나를 찾아 험한 길 걸으시네

만왕의왕 내 주께서 나를 부르지 않고 친히 나를 찾아 오셨네

내 앞에 서계시네 그 발앞에 엎드려 주를 볼수도 고개 들수 없는 내게

그 허리 굽혀 옷으로 내 수치 덮으시고 그손 내손 잡아 일으키시네

그 사랑 나를 만지시네 그 사랑 나를 숨쉬게해

그 사랑 나를 일으키시네 그 사랑 날 잠잠케 하네

그 흙먼지 속을 말 없이 걸으시네

그 흙먼지 속을 날 위해 걸으시네

**그저 웁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날개 아래 엎드려

주님 무덤가에 앉아 울던 여인들처럼, 무너진 곳 보던 느헤미야처럼 나는 그저 웁니다

내 기도 노래 될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때까지

내눈물 닦아 주시는 그날 기다리며 그저 웁니다

내 삶의 주인 이제 내가 아니기에 주인이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내 삶의 주인 이제 내가 아니기에 주인이신 주님 날개아래 엎드려 그저 웁니다

내 눈물 기다리신 주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워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그 품에 안기에 그저 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눈을 지은 내가 너의 눈물 보이지 않겠느냐

귀를 지은 내가 너의 한숨소리 듣지 못하겠느냐

마음 지은 내가 너의 상한 심령 모르겠느냐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 여호와 니라

지난날을 아파하지도, 다가올 날을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너의 상처와 필요 안단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라

**내 평생 주님 한분** (작사 김연재)

주여 달이 되어 물인 날 비추시고 해가 되어 불인 나를 덮으소서

주여 바람되어 갈대인 날 만지시고 별이되어 아무것 없는 내게 소망되어 주소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처음과 끝되신 여호와여

내평생 주님 한분만 높이게 하소서

내 평생 주님 한분만 바라게 하소서

내평생 주하나로 만족케 하소서

**거룩한 악기**

나의 음성 나의 호흡 주신이가 자격 없는 나를 불러 노래하게 하시네

나의 고백 나의 찬양 온전케 하시려 나를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네

불 가운데 지나며 모든 것 소멸되어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며 모든 것 소멸되어 주님 손만 붙들게 하시네

내 음성 주님 닮기 원하네 (숨소리도)

내 호흡 주님 닮기 원하네

나를 부르신 주님앞에 거룩한 악기 되어 내 평생 주님 한분만 높이리라

내 평생 주님 한분만 노래하리

**이길 끝에**

이길은 좁아도 주의 얼굴빛이 비추는곳

이길은 험해도 주의발이 나보다 앞서 걷는 곳

이길은 거칠어도 주의 부드러운 음성 들리는곳

이길 끝에 주님만 계신다면 이길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의 신실하심 따라가리 그의 인자하심 따라가리

그의 선하심을 닮아가리 내 평생 주를 높이리

I will Praise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to God all my life

**주님은 나에게**

어둠속에서 발짓하는 나를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 있으라 그는 나의 하나님

내 눈물 지나칠수 없으신 내마음에 그 마음 머물러 계신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 그는 나의 아버지

그의 신실하심 나를 먹이시고 그의 긍휼하심 나를 참으시고

그의 사랑하심 나를 이끄시는 그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

큰소리 쳐봐도 이룰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소망** (작사 성우경)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알수 없고 기대할수 없지만

내가 서있는 이곳 주를 예배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은 내마음 알수 없고 염려 가득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내손붙드시니 나 두렴없게 하소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곳 되게 하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되게 하소서

내 영혼 주를 바라게 하소서 내 영혼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내 영혼 주안에 평안케 하소서 내 영혼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옮기는 걸음걸음 그 위로 떨어지는 핏방울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저 눈물 내가 흘려야 할 눈물

그때 내가 외면한 십자가 이제 내가 지고 한걸음 걸어 가리라

다시 만날 주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십자가 거두지 마소서

나의 십자가 옮기지 마소서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 저 하늘에서 나의 면류관

**욥의 고백Ⅰ**

작은 나의 마음 크신 주의 생각 알수 없고

종된 나는 주인보다 클 수 없으니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고백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는 한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의지하는 한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한가지, 주님의 선하심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밖에 없으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고백Ⅱ**

이 고난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이해 할 수도 나를 이해시키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나와 함게 계시니 까닭 없이 나를 치셔도

주님 앞에 나는 종이기에 그저 순복 합니다 나는 순종 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그 이유로 나는 충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게 충분 합니다

주님 손에 안에 있는 나는 자유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온전 합니다

**사명의 길** (작사 김연재)

나 고난의 길을 갑니다

내 주님 나보다 먼저 가신 그길

나 눈물의 길을 갑니다

내 주님이 먼저 눈물 흘린 그길

멸시와 조롱 날 부끄럽게 하여도 주내게 명하시니 순종하리라

수치와 모욕 날 두렵게 하여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아가리라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안으소서 그의 말씀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의 음성 나를 위로하여 주시네

나의 종아 네 순종이 고맙다

나의 종아 네 믿음이 고맙다

**주님을 기다리라**

너의 영혼 낙담 할 때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너의 노력을 멈추고 너의 수고를 그치고 너는 주님을 기다리라

헛된말을 쫓지 말고 허망한 인생을 기다리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구하지 말고 너는 주님만을 바라라

너는 주님을 기다리라

너의 도움은 주님께 있도다

너의 구원은 주님께 있도다

주님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으시며 오직 완전하신 분

오직 완전한 주님

너의 도움은 주님께 있도다

너의 구원은 주님께 있도다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라